구약논단

제 16권 4호(통권 38집) 2010년 12월 31일

김 희석(총신대) 시 144편에 나타난 다윗왕권과 그 신학적 함의 71

본 논문은 시 144편이 시 8편과 시 118편의 본문을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를 시편에 대한 구성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살펴본다. 시 144편은 다윗을 신적 권위를 지닌 제왕이 아닌 여호와 왕권을 인정하는 한 사람으로 그려낸다. 이런 신학적 통찰은 하나님 왕권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신앙인들을 통하여 다윗언약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시편 5권의 신학적 함의를 완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Kim, Hee Suk Davidic Kingship in Psalm 144 and Its Theological Implications 71

www.kci.go.kr

시 144편에 나타난 다윗 왕권과 그 신학적 함의[1)]

김 희석 | **총신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시 144편은 다른 여러 시편들과 문학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별히 시 8편과 시 18편의 여러 구절들을 응용하고 있으며, 시 33, 89, 102, 104편과도 유사한 구절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2)] 본 소고에서는 이러한 시 144편과 다른 시편간의 관계성에 나타난 신학적 관점이 시편 5권의 흐름에 있어서 여호와의 왕권과 다윗 언약의 관계

1) 본 논문은 2010년 9월 제83차 한국구약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논찬자로서 귀한 조언을 주신 김 필회 박사와 김 재구 박사께 감사드린다.

2) 시 144편과 시 8편, 시 18편과의 문학적 연관성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다. 주요한 예들로 다음 연구들을 보라: 김 정우, 「시편주석 III」(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741-752쪽; John Goldingday, *Psalms Volume 3: Psalms 90-150*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683-688쪽; Leslie C. Allen, *Psalms 101-50* (WBC 21; rev), (Nashville: Thomas Nelson, 2002), 361-364쪽;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FOTL XV),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428-429쪽; Frank-Lothar Hossfeld and Erich Zenger, *Psalmen 101-150* (HThKAT), (Freiburg im Breisgau: Herder, 2008), 776-789쪽.

www.kci.go.kr

를 어떻게 정립해 가는지 추적하려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본 소고는 먼저 시 144편의 문맥과 구조를 살피고, 시 144편의 신학적 메시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본 후, 시 144편이 시 18편과 시 8편과 맺고 있는 문학적/신학적 연관성을 논의하고, 이러한 시 144편의 특성이 시편 전체와 구약신학에 기여하게 되는 함의들을 논하려고 한다.

2. 기존의 연구 분석

1) 시 144편의 문맥

윌슨(G. H. Wilson)의 연구에 의하여 시작된 시편의 최종 형태에 대한 흐름을 살피는 방법론(compositional approach)은 그의 영향으로 이후 많은 연구물들을 낳게 되었다.[3] 이러한 최종 본문 연구법 중 매우 중요하게

---

3) Gerald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o: Scholars Press, 1985). 그간의 최종 본문 형태 연구에 대한 요약으로는 다음을 보라: 유 윤종,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제32집(2009년 6월): 35-46쪽. 이러한 연구들 중 중요한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David G. Firth/Philip Johnston,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Downers Grove: IVP, 2005); David M. Howard,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Winona Lake: Eisenbrauns,1997); idem, "Recent Trends in Psalms Study," D. W. Baker/B. T. Arnold(eds.), *The Face of Old Testament Studies: A Survey of Contemporary Approach* (Grand Rapids, MI: Bakers, 1999), 329-368쪽; J. K. Kuntz, "Engaging the Psalms: Gains and Trends in Recent Research," *CR: BS* 2 (1994), 77-106쪽; J. Clinton McCan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idem, "The Shape of Book I of the Psalter and the Shape of Human Happiness," Peter W. Flint, et al(ed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Sup 99), (Leiden: Brill, 2005), 340-348쪽; J. Clinton McCann/Nancy Rowland McCann,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the Psalms as Torah* (Nashville: Abingdon, 1993); Harry Peter Nasuti, "The Interpretive Significance of Sequence and Selection in the Book of Psalms," Peter W. Flint, et al.(ed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Sup 99), (Leiden: Brill, 2005), 311-339쪽; R. N. Whybray, *Reading the Psalms as a Book* (JSOTSup 22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6); Gerald Henry Wilson, *Psalms: Volume 1*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2); idem, "King, Messiah, and the Reign of God: Revisiting the Royal Psalms and the Shape of the Psalter," Peter W. Flint, et al.(ed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Sup 99), (Leiden: Brill, 2005), 391-406쪽; E. Zenger, "The Composition and Theology of the Fifth Book of Psalms, Psalms 107-145," *JSOT* 80 (1998), 77-102쪽; idem,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Psalms," *Proceedings of the Irish Biblical Association* 17 (1994), 37-54쪽; Patrick D. Miller,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J. C. McCann Jr.(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3), 83-92쪽; idem, "The End of the Psalter: A Response to Erich Zenger," *JSOT* 80 (1998), 103-10쪽; D. C. Mitchell,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Sup 25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7); Jinkyu Kim, "The Strategic Arrangement of Royal Psalms in Books IV-V," *WTJ* 70 (2008), 143-157쪽. 최종 본문 형태를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다음을 보라: Jinkyu Kim, "Psalm 110 in its Literary and Generic

www.kci.go.kr

고찰되는 것이 바로 제왕 시들의 위치이다. 시 1편과 시 2편이 시편의 서론인데, 그 중 시 2편이 제왕 시로서 시편 전체를 조망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준다.[4] 또한 시편 2권을 마무리하는 시 72편, 시편 3권을 마무리하는 시 89편도 제왕 시로 역할하고 있다. 즉 시편 1, 2, 3권의 주요한 전환적 지점에 제왕 시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5] 이러한 점에서 시 144편과 시 145편의 위치도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시편 묶음인 시 146 - 150편을 시편 전체의 송영으로 간주한다면, 시 144 - 145편은 실제로 시편의 본 내용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시 145편은 지혜 시 혹은 찬양 시로 여겨지는데, 시편 5권을 마무리한다. 윌슨의 연구에 따르면, 지혜 시들은 시편 각 권의 시작과 끝에 위치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편 1권의 시작인 시 1편, 시편 3권의 시작인 시 73편, 시편 4권의 시작인 시 90편, 그리고 시편 5권의 시작인 시 107편이 시편 전체의 가장 바깥쪽의 구조를 구성한다.[6] 이에 반하여 또한 본 소고의 연구 본문인 시 144편은 제왕 시로 여겨지고 있다.[7] 따라서 지혜 시들이 시편의 가장

Contexts: An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Ph.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3; Sung-soo Kim, "Reading the Songs of Ascents (Psalms 120-134) in Context," Ph.D dissertation, Luther Seminary, 2003; Shirley S. Ho, "Wisdom, Life, and Restoration of Zion: A Compositional Study of Psalm 119 and the Songs of Ascents,"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5; A. K. Lama, "The Placement of Psalm 145 in Book V: A Compositional Analysis,"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7; Yohanna Issa Katanacho, "Investigating the Purposeful Placement of Psalm 86,"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7; So-Ra Kang, "Reading Book I of the Psalter through the Ashre Sayings,"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7; EunMee Moon, "The Sapiential Reading of Psalms 107--18 in the Framework of Books IV and V of the Psalter,"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8.

4) Miller, 윗글, 83-92쪽.

5) G. H. Wilson, "Shaping the Psalter: A Consideration of Editorial Linkage in the Book of Psalms," J. Clinton McCann(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meic, 1993), 72-82쪽.

6) 윗글, 80-82쪽. 시편 5권 안에서 시 145편이 가지는 위치와 기능에 관하여는 다음을 보라: 강 소라, "시편 145편: 시편에서의 위치와 기능" 「구약논집」 제 4집(2008), 23-41쪽. 강 소라의 논문에서는 시 145편이 시편 5권의 첫 시편인 시 107편의 주제들을 상기시키며 그 내용이 145편에 "실현되었음을 증거하는 기능"을 함을 지적하고 있다.

7) A. Weiser, *The Psalms: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823-824쪽; H. J. Kraus, *Psalms 60-150: A Continental Commentary*, H. C. Oswald(trans.), (Minneapolis: Augsburg, 1989), 541쪽: S. R. A. Starbuch, *Court Oracles in the Psalms: The So-Called Royal Psalms in their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SBLDS 172), (Atlanta: Scholars, 1999), 118-119쪽; M. Saur, *Die Königsppsalmen: Studien zur Enststehung und Theologie* (BZAW 340), (Berlin: deGruyter, 2004), 249-268쪽.

www.kci.go.kr

바깥쪽의 틀을 형성한다면, 시 2편, 72편, 89편, 144편으로 이어지는 제왕시의 틀은 지혜 시들의 옆이나[8] 시편 각 권의 끝마무리에[9] 위치하고 있다.

특별히 시편 5권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시 144편이 기여하는 역할을 살펴야 한다. "솔로몬"의 표제를 가진 시 72편이 다윗의 후손을 강조하는 의미로 시편 2권을 마무리하며, "에단의 마스길"인 시 89편이 다윗 언약의 실패라는 고통을 감내하며 탄원의 기도를 올리며 시편 3권을 종결하고 있다면,[10] "다윗의(לְדָוִד)"라는 표제를 가진 시 144편은 다윗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시편 5권 전체의 흐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별히 시 138 - 145편은 시편 5권에 나타난 두 번째 다윗 시 모음집이다. 첫 모음집은 시 108 - 110편이며, 두 번째 모음집은 시 138 - 144편이다.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집인 시 120 - 134편 가운데 시 132편이 또한 다윗의 시로 기록된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과연 시 144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의미심장하다. 시 144편은 두 번째 다윗 시편 모음집의 거의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시편으로,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것과 같이 시 8편, 시 18편 등의 시편의 내용과 깊이 연관된다.[11]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시 144편이 제왕 시로서, 또한 시편 5권을 마무리하는 시편 중 하나로서, 또한 다윗 시편으로서, 시편 전체의 신학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이 살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시 144편의 신학적 메시지

이제 시 144편의 신학적 메시지에 관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한다. 대개의 학자들은 시 144편에 나타난 신학을 "다윗 왕권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간구"로 이해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홀쯔(Holtz)의 견해가 이러한 경향을 뚜렷이 드러내 준다.[12] 그는 시 144편을 크게 두

---

8) 시 2편은 시 1편의 바로 뒤에 위치하며, 시 144편은 시 145편의 바로 앞에 위치한다.

9) 시 72편과 시 89편을 보라.

10) Wilson, 윗글(1985), 208쪽; J. Clinton McCann,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J. Clinton MaCann(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98-99쪽; Frank-Lothar Hossfeld and Erich Zenger. *Psalms 2: A Commentary on Psalms 51-100* (Hermeneia), Linda M. Maloney(trans.), (Fortress: Minneapolis, 2005), 219, 415쪽.

11) 이렇듯 시편 5권에 나타난 다윗 시편이 시편 1-3권에 나타난 다윗 시편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깊이 연구되어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12) S. E. Holtz, "The Thematic Unity of Psalm cxliv in Light of Mesopotamian Royal Ideology,"

www.kci.go.kr

부분(1-11절, 12-15절)으로 나누고, 이 두 부분의 주제(1-11절: 전쟁을 위한 도움 요청; 12-15절: 번영에 대한 서술)가 병렬로 나타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제왕 시의 한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홀쯔는 특별히 아술바니팔(Assurbanipal) 왕의 대관식 찬양 시와 마르둑(Marduk) 예언에서 전사로서의 왕(king as warrior)이라는 주제와 공급자로서의 왕(king as provider)라는 주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그 예로 제시한다.[13] 이를 바탕으로, 홀쯔는 시 144편은 고대근동 제왕 시 중 하나로 보아야 하며, 그 중심 주제는 제왕 사상이며, 포로 후기 시대에 다윗 왕권의 회복을 향한 소망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14] 앨런(L. Allen)도 이러한 시 144편의 다윗 왕권 회복에 대한 해석을 지지한다. 그는 포로 후기 공동체가 이전의 다윗 전승을 이어받아서 포로 후기 시대에 적합하도록 보편화시켰다고 해석한다.[15] 골딩게이(Goldingday)는 시 144편이 포로 이전에 기원했든지, 아니면 포로 후기에 기원했든지 관계없이, 이 시편 자체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공동체에 적용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16] 테리엔(S. Terrien)은 시 144편의 기자가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서서 우주적인 평화를 바라보았다고 분석함으로써, 제왕 시로서 시 144편의 신학성을 지지하였다.[17] 메이즈(Mays)는 시 144편을 느헤미야 시대의 것으로 보면서, 다윗 왕권에 대한 노래인 시 18편이 포로 후기 공동체의 역사적 정황에 맞추어 새롭게 불려진 것이라고 이해하였다.[18] 김 진규는 시 144편이 시 18편뿐 아니라 슥 14장과 유사함에 주목하면서, 시 144편은 "다가오는 마지막 종말론적 전쟁에 대비"하는 내용이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전쟁에 대비하여 "종말론적 다윗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19] 이러한 김 진규의 해석은

VT 58 (2008), 367-380쪽.

13) Assurbanipal 찬양 시의 본문은 VAT 13831이다. A. Lvingstone, *Court Poetry and Literary Miscellanea* (State Archives of Assyria 3),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89), 11: 26-27쪽. Markduk 예언 시의 본문은 다음을 보라: R. Borger, "Gott Marduk und Gott-König Šulgi als Propheten," *BiOr* 28 (1971), 4-13쪽. Holtz, 윗글, 376-378쪽에서 재인용.

14) Holtz, 윗글, 379-380쪽.

15) Allen, 윗글, 363-365쪽.

16) Goldingay, 윗글, 690-692쪽.

17) S. Terrien,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Eerdmans Cri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drmans, 2003), 896-901쪽.

18) James L. Mays, *Psalm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4), 436-437쪽.

19) 김 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구약논

www.kci.go.kr

시편 4 - 5권에서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으로 해석하는 윌슨의 관점을 반박하면서, 시편 4 - 5권을 통하여 다윗 언약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새롭게 변혁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그의 논지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20]

시 144편이 다윗 왕권의 회복을 희망하고 있다는 이러한 주장에 반하여, 호스펠트(Hossfeld)와 젱어(Zenger)는 시 144편에서 묘사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왕으로서의 인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한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1] 시편 1 - 3권에서 나타난 하나님 왕권을 부여받아 통치하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제왕의 모습이 시 138 - 145편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이다.[22] 본 소고에서는 이러한 호스펠트와 젱어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시 144편이 시 8편과 시 18편을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하고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시편 1권은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세워져 제왕으로서의 모습을 선언하는데 반하여, 시편 5권, 그 중 특별히 시 144편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다시금 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려고 놓고 있음을 시 8편과 시 18편과의 intertextuality의 관계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3. 시 144편과 시 18편의 비교 연구

1) 시 144편의 구조

먼저 시 144편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그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자. 시 14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시 144편 1-11절은 시편 기자가 이방인 대적으로부터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며, 12-15절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누리게 되는 축복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두 부분 중에 시 8편과 시 18편과 단어적/주제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부분은 첫 단락인 1-11절이다.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시 144편의 메시지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2) 시 18편과의 비교 연구 - 다윗 왕권에 대한 주제 발전 고찰

단」 (2009년 6월), 102-104쪽.

20) 윗글, 83-110쪽.

21) Hossfeld and Zenger, 윗글(2008), 776-789쪽.

22) 윗글, 788쪽.

www.kci.go.kr

먼저 시 18편과 시 144편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우리가 고찰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시 18편은 제왕 시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עֶבֶד יְהוָה 에베드 아도나이; 1절[표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מְלוֹכֵ 말코/그의 왕; 51절),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מְשִׁיחַ 메쉬호/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51[50]절)로 묘사된다. 이러한 다윗의 직위에 대한 언급은 시 18편 전체의 앞뒤(1[표제]절과 51[50]절)에 나타나며 시 전체를 *inclusio* 형식으로 아우르고 있다.[23]

(2) 시 18편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1[표제]-31[30]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임재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를 표현하며, 둘째 부분(32[31]-51[50]절)은 기름부음 받은 다윗이 전쟁을 수행하는 왕과 용사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방을 복속시키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다.[24] 김 정우는 시 18편을 "승전감사시"로 분류한다.[25]

(3) 시 18편과 시 144편은 단어와 주제적인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유사점들이 시 18편에서 시 144편으로 이어지면서 어떠한 발전 혹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럴 때에 시 144편이 시 18편을 인용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시 18편과 시 144편에 나타나는 유사점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①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유사하다.

"מָגִנִּי"(마긴니/나의 방패), "מְפַלְטִי"(메팔티/나의 구원자), "מְצוּדָתִי"(메추다

---

23) 시 18편은 히브리 원문과 한글번역본 사이에 절 구별이 다르다. 본 소고에서는 히브리 원문의 절 구분을 우선적으로 표기하고, 한글번역(개역개정)의 절이 이와 다를 때는 [ ]안에 다시 표시하였다.

24) Mays, 윗글, 90-96쪽; J. Goldingay, *Psalms Volume 1: Psalms 1-41*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2006), 280-281쪽; Craigie, 윗글, 175-176쪽.

25) 김 정우는 시 18편을 5개의 연으로 분류하고, 이 시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다윗 왕조에게 주어진 우주적 왕권이 강조되고 있음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김 정우, 「시편주석 I」(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5), 420-458쪽.

www.kci.go.kr

티/나의 요새), "מִשְׂגַּבִּי"(밋갑비/나의 산성)이라는 네 가지 표현은 시 18편 2[1]절과 시 144편 2절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할 자로 묘사하고 호칭한다는 점에서 시 18편과 시 144편은 동일하다.

② 하나님께서 땅으로 강림하셔서 시편 기자를 돕게 되는 묘사 장면들이 유사하다.

시 18편 10[9]절 "וַיֵּט שָׁמַיִם וַיֵּרַד"(그가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시니)와 시 144편 5a절의 "יְהוָה הַט־שָׁמֶיךָ וְתֵרָד"(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라는 구절은 거의 동일하다. 시 18편 15[14]절의 "וְיִשְׁלַח חִצָּיו" וַיְפִיצֵם וּבְרָקִים רָב וַיְהֻמֵּ"(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라는 구절은 시 144편 6절에서는 단어를 재배열하는 방법으로 재구성되었는데, "בְּרֹק בָּרָק וּתְפִיצֵם שְׁלַח חִצֶּיךָ וּתְהֻמֵּמ"(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기록된다. 시 18편 17[16]절의 "יִקָּחֵנִי יַמְשֵׁנִי מִמַּיִם רַבִּי" שְׁלַח מִמָּ ם"(그가 그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라는 구절 또한 시 144편 7절에서 단어를 재배열하여 나타났는데, "שְׁלַח יָדֶיךָ מִמָּ ם פְּצֵנִי וְהַצִּילֵנִי מִמַּי רַבִּים מִיַּד בְּנֵי נֵכָ"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양상에서 보았을 때, 시 18편과 시 144편은 그 단어와 주제적인 구성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③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다는 주제에서 동일하다.[26]

시 18편 35[34]절에서 다윗은 "מְלַמֵּד יָדַי לַמִּלְחָמָה"(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라고 고백하였는데, 이 고백은 시 144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된다: "הַמְלַמֵּד יָדַי לְקְרָב אֶצְבְּעֹתַי לַמִּלְחָמָה"(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위의 세 가지 유사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구원자가 되시며, 다윗을 위하여 임재하시는 용사이시며, 또한 다윗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 18편과 시 144편의 주제적 발전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

26) 김 정우, 윗글(2010), 747쪽.

www.kci.go.kr

(4) "이방인"이라는 주제가 매우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בְּנֵי נֵכָר.(버네 네칼/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시 18편에서 다윗 왕권이 우주적인 통치 능력을 얻게 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였다.[27] 시 18편 44[4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성"(עָם 암)과의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민족"(גּוֹי 고임)의 으뜸으로 삼으셨기에 다윗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됨이 나타난다. 이런 시 18편 44[43]절의 내용은 45[44]-46[45]절에서 더욱 발전하는데, 바로 이방인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방인(בְּנֵי נֵכָר 브네 네카르)이라는 문구는 다윗이 알지 못하는 열방이 그 앞에서 떨며 복종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두 번(45[44]절, 46[45]절)에 걸쳐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은 시 144편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시 144편에서도 이방인(בְּנֵי נֵכָר)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는데(7절, 11절), 이 때 이방인은 다윗에게 복종하기는커녕, 다윗을 핍박하는 권세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 שְׁלַח יָדֶיךָ מִמָּרוֹם פְּצֵנִי וְהַצִּילֵנִי מִמַּיִם רַבִּים מִיַּד בְּנֵי נֵכָר
>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시 144: 7)

특별히,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시 144편 7절은 시 18편 17[16절]과 유사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을 드러내는데, 바로 '이방인'이라는 구절이 시 144편 7절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시 144편 7절이 의도적으로 시 18편 17[16]절의 내용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방인"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시 18편과 시 144편의 차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시 18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윗 왕권이 이방인까지 복종시키는 우주적 통치를 행하는 주제의 발전을 보이는데, 시 144편은 다윗이 이방인에게 압제받음을 표현함으로써 우주적인 다윗 왕권의 통치가 무너졌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 144편은 다윗 왕권의 우주적 통치가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오직 이방인의 압제와 구속으로부터 구하여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뿐이다. 골딩게이는 시 144편 8절에 보다 집중하여, 시 18편에서 시편 기자의 대적은 단순히 강하

27) Mays, 윗글, 94-95쪽; 김 정우, 윗글(2005), 455쪽.

www.kci.go.kr

기만 하였으나, 시 144편의 시편 기자의 대적은 속임수에 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28] 시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대적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속임수 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시 144편 7절의 이러한 이방인의 거짓됨은 11절에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반복되면서, 다윗 왕권이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강조하며 부각시킨다.

> פְּצֵנִי וְהַצִּילֵנִי מִיַּד בְּנֵי־נֵכָר אֲשֶׁר פִּיהֶם דִּבֶּר־שָׁוְא וִימִינָם יְמִין שָׁקֶר
>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시 144: 11)

지금까지의 내용을 시 144편의 흐름을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 144편 1-2절에서는 시 18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에게 전쟁을 가르쳐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준다.
② 시 144편 5-7절 역시 시 18편의 내용과 동일한 주제를 전개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로 임재하사 다윗을 구원하실 것임을 설명한다.
③ 그런데 시 144편 7절 후반부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주제를 등장시키면서 시 18편과 전혀 다른 측면으로 주제를 전개시키고 있다. 다윗 왕권의 우주적 통치라는 시 18편의 주제가 시 144편에서는 다윗 왕권이 이방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환되어 부각되고 있다.[29]

이방인이라는 주제로 인하여 부각된 시 18편과 시 144편의 다윗 왕권에 대한 시각 차이는 시 144편 12-15절에 이르러서는 더욱 선명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시 144편 12-15절의 본문은 시 18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시 18편에서는 "다윗 왕권"의 우주적인 통치를 강조한다면, 시 144편 12-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

28) Goldingday, 윗글(2008), 687쪽.
29) Mays는 이러한 시 144편의 이방인의 압제에 대한 표현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즉, 포로 이전 시대의 시 18편의 이방인에 대한 관점이 포로후기 공동체의 관점으로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Mays, 윗글, 436쪽.

www.kci.go.kr

인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 144편 12-15절의 두 가지 주제적 특징을 살펴보자.

① 시 144편 12-14절의 본문에서 주된 관심 대상은 1인칭 복수형인 "우리"에 있다.

시 18편에서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의 정하신 메시아, 즉 기름부음 받은 다윗 왕권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시 144편은 더 이상 다윗이 받게 되는 특별한 지위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는다.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게 될 것에 주목한다. 12절의 "בָּנֵינוּ"(바네누/우리 아들들), "בְּנֹתֵינוּ"(베노테누/우리 딸들)이라는 문구들은 시편 기자를 1인칭 복수형으로 확대함으로써 주제적 관심의 대상을 보편화(democratization)하고 있다. 13-14절에서 반복되는 "מְזָוֵינוּ"(메짜베누/우리의 곳간), "צֹאנֵנוּ"(초오네누/우리의 양), "אַלְפֵּינוּ"(알루페누/우리의 수소), "רְחֹבֹתֵינוּ"(레호보테누/우리의 거리) 등의 표현들에 나타난 공동체 성을 주목한다면, 시 144편의 관심은 다윗 왕권을 넘어선 이스라엘 공동체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0]

② 시 144편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강조한다.

15절은 "백성"(עָם 암)이라는 단어를 연달아 두 번 언급한다. 이는 통치의 대상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시 18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 백성들까지 다스렸으나, 시 144편은 다윗의 통치를 언급하는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언급한다.[31]

즉 시 144편 12-15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다윗 왕권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32] 이것은 시 18편과 시 144편의 중요한 차이점을 형성한다.

---

30) Allen, 윗글, 362-365쪽.

31) 시 144편 15절은 시 33편 12절과 매우 유사하다. Golingday, 윗글(2008), 690쪽; Allen, 윗글, 361쪽.

32) Th. Booji는 12-15절이 9절에서 언급한 "새 노래"라고 본다. Th. Booij, "Psalm 144: Hope of Davidic Welfare," *VT* 59 (2009): 173-180쪽.

www.kci.go.kr

4. 시 144편과 시 8편과의 비교 연구

이제 시 144편이 시 8편의 주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시 8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 144편의 본문은 3-4절인데, 특별히 3절이 시 8편 5[4]절과 매우 유사하다.

מָה אֱנוֹשׁ כִּי תִזְכְּרֶנּוּ וּבֶן־אָדָם כִּי תִפְקְדֶנּוּ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 8: 5[4])

יְהוָה מָה־אָדָם וַתֵּדָעֵהוּ בֶּן־אֱנוֹשׁ וַתְּחַשְּׁבֵהוּ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시 144: 3)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 시 8편 5[4]절에서는 אֱנוֹשׁ(에노쉬/사람), בֶּן־אָדָם(벤 아담/사람의 아들)으로, 시 144편 3절에서는 אָדָם(아담/사람), בֶּן־אֱנוֹשׁ(벤 에노쉬/사람의 아들)로 교차하여 표현하였다. 비록 사용하고 있는 동사들은 다르지만(시 8: 5[4] זכר 자칼/기억하다, פקד 파카드/감찰하다; 시 144: 3 ידע 야다/알다, שׁב 하샤브/생각하다),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묻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해석해야 한다.[33] 즉 시 8편 5[4]절과 시 144편 3절은 하나님의 인간관(anthropological view of God)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시 8편의 대답과 시 144편의 대답에 큰 차이가 있다.

시 8편 6[5]절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다:

וַתְּחַסְּרֵהוּ מְעַט מֵאֱלֹהִים וְכָבוֹד וְהָדָר תְּעַטְּרֵהוּ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 8: 6[5])[34]

---

33) Goldingday, 윗글(2008), 685쪽.

34) 한글 개역개정판에서는 מֵאֱלֹהִים(메엘로힘)을 "하나님보다"라고 번역하였다. 이 단어는 하나님, 천사, 혹은 지도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번역이라 해도 시 8편 전체에 있어서 구절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시 8편 6[5]절은 여호와께서 인간을 모든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מֵאֱלֹהִים이라는 비교 문구를 대상으로 넣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 정우는 시편 기자가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비교하였음을 말한다. LXX, Tg, Syr에서는 "천사보다"라고 번역하였고, 제롬,

www.kci.go.kr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피조물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원적으로 보았을 때 존재론적 제한성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 8편 6[5]-9[8]절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세상을 지배하는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데 있다. 6b[5b]절에서는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다"고 하셨고, 7[6]-9[8]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모든 피조물(우양, 들짐승, 새,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모든 것들로 상징됨)들이 인간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즉 시 8편이 5[4]절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물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세상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긍정의 인간관을 제시하기 위함인 것이다. 김 정우, 김 성수, Mays 등은 이를 인간에게 왕권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다.[35]

반면 시 144편 4절은 전혀 반대되는 인간관을 제시한다:

> אָדָם לְהֶבֶל דָּמָה יָמָיו כְּצֵל עֹבֵר
>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 (시 144: 4)

시 8편의 관점과는 달리, 시 144편은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다룬다.[36] 시 144편 4b절에 나타나는 הֶבֶל(헤벨/덧없음)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어로서 인

아퀴나스, Sym, Th에서는 "하나님보다"로 번역하였다. 이 문구를 "하나님보다"라고 번역하는 주장들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김 정우, 윗글(2005), 286-287쪽; 이 희학, "시편 8편을 통해 본 구약 성서적 인간 이해," 「구약신학저널」 제 2권 (2001년), 163쪽; Peter C. Craigie, *Psalms 1-50* (WBC 19), (Waco, TX: Word Books, 1983), 105쪽; G. H. Wilson, 윗글(2002), 207쪽. 골딩게이, 김 이곤, 이 기락은 시편 8편을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주제와 연결하고 있다: Goldingay, 윗글(2006), 159쪽; 김 이곤, "시편 8편에 나타난 신학적 인간학," 「한신논문집」 제3집 (1986년), 6-9쪽; 이 기락,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서학적 고찰: 창세 1-2장의 인간 창조 설화와 시편 8편을 중심으로,"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7집 (1992년), 34-53쪽. 이 문구를 "천사보다"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을 보라: 방 석종, "시편 8편 연구: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 「신학과 세계」 제 28집 (1994년), 7-24쪽; 이 태훈,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편의 여섯 가지 장르별 이해」(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6), 272쪽.

35) 김 정우, 윗글(2005), 287-288쪽; 김 성수, "시편 3-14편의 문맥 속에서 시편 8편과 14편 읽기," 「ACTS 신학과 선교」 제9집(2005년), 67-69쪽; Mays, 윗글, 68-70쪽.

36) 김 정우, 윗글(2010), 748-749쪽.

www.kci.go.kr

생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사람의 인생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자체가 제한된 존재임을 암시한다.[37] 이러한 인생의 제한성은 시 90편 3-6절에 묘사된 것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비교에서 나타난다.[38]

그렇다면 시 144편은 왜 이러한 특별한 이미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시 144편 3절에서는 시 8편과 매우 유사한 도입을 한다. 이러한 단어/주제적 연결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시 8편을 생각나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4절에서는 시 8편과 관련되어 독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왕적 지도력에 대한 이미지 대신, 정반대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다. 바로 사람의 인생이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아무 보잘것없다는 그림자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시 144편 3-4절은 독자들로 하여금 시 8편에서의 인간에 대한 왕권적 이미지를 기대하게 한 직후에 그 기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강조하려는 전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39] 시 144편이 그리는 인간관(anthropological view)은 왕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지닌 인간이다.

5. 시 144편의 신학적 함의

지금까지 우리는 시 144편의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시 144편은 시 18편에 나타난 다윗 왕권의 주제를 전환시켜 여호와 왕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시 144편은 시 8편에 나타난 왕/지도자로서의 인간관을 전환시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지닌 인간관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시 144편이 왜 이러한 전환을 시도하는지 시편 전체에 있어서의 그 신학적 의미를 탐구해 보려 한다.

1) 시편 1권의 신학적 메시지와의 연관성

시편 1권의 맥락에 있어서 8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편 전체의 서론으

37) 호스펠트와 젱어는 전도서뿐 아니라, 시 39편 6[5]절, 시 62편 10[9]절, 시 94편 11절, 욥 8장 9절, 욥 14장 2절, 욥 17장 7절과 연결시킨다. Hossfeld and Zenger, 윗글(2008), 781쪽.

38) 골딩게이는 시 39편 6[5]절, 시 102편 12[11]절과 연결시킨다. Goldingay, 윗글(2009), 686쪽.

39) 골딩게이는 시 8편과 시 144편 사이의 이러한 인간관의 차이를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다만, 시 144편 3절이 시 8편에 나타난 인간관을 기대하게 만들고 4절이 그러한 기대를 부정한다는 데까지는 지적하지는 않는다. Goldingday, 윗글(2008), 685-686쪽.

www.kci.go.kr

로 여겨지는 시 1 - 2편 이후, 시 3 - 7편은 다윗의 애가 모음집으로 묶여져서 다윗이 당한 고난을 묘사하며, 다윗을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탄원자로 그린다. 그 후 시 8편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등장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권/지도권을 가진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 8편의 긍정적인 인간관은 시편 1권의 맥락에 있어서 다윗 왕권의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초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왕권의 주제가 시 8편에서는 인류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으로 표현되었으나, 이 주제가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시 18편에 이르러서는 다윗 왕권에 대한 확신적인 묘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 8편의 '인간관'은 시 18편의 '다윗 왕권 확립'에 대한 근거이자 기초가 된다. 이러한 흐름은 시 9 - 17편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분명해진다. 시 9 - 17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감찰하셔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묘사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는 모습을 차분한 어조로 그려낸다. 시 9편에서는 공의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시 10편에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으며, 시 11편에서는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즉 의인과 악인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한다. 시 12편은 인생 중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끊어졌음을 지적하고, 시 13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눈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며(시 13: 3[4]), 시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 경계하며, 시 15편에서는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의인의 특성을 말하고, 시 1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훈계하시고 밤마다 양심이 자신을 훈계한다고 고백하고(시 16: 7), 결정적으로 시 17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실 것이라고 단언한다(시 17: 3). 시 9 - 17편의 방대한 내용을 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하여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으로 인정받았음을 순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 8편이 긍정적인 인간관으로 출발점의 역할을 한다면, 시 9 - 17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다윗이 의인임을 증명하고, 시 18편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열방을 향하여 왕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www.kci.go.kr

2) 시편 5권에서의 신학적 메시지

시편 1권에 나타난 이런 '인간관'과 '다윗 왕권'의 연결 고리를 이해한다면, 시 144편이 왜 시 8편의 '인간관'과 시 18편의 '다윗 왕권'이라는 주제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 144편은 시편 5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속한 시편이다. 시편 3권의 마지막 시편인 시 89편에서 다윗 언약의 실패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이후, 시편 4권에서는 다윗 왕권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다윗 왕권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강조한다(시 93, 95 - 99편).[40] 시편 5권에 이르러서 시 108 - 110편과 시 138 - 145편이 다윗 시편으로 다시금 등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5권에서 다윗의 시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41] 본 소고의 지면의 한계로 인해 시편 5권에서 다윗 왕권/다윗 언약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으므로, 몇 가지만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 108 - 110편의 마지막인 시 11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이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보좌 옆에 계신 이는 왕의 이미지와 제사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지닌 존재이며, 다윗은 직접 세상을 다스리는 대신 보좌 우편에 계신 이에 대하여 노래하고 예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42] 시 138 - 145편의 다윗 시편 모음에서 다윗은 스스로 다스리는 왕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등장한다. 특별히 시 139편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해 달라고 말하며(시 139: 23-24), 시 141편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하며(시 141: 4), 시 142편에서는 대적 앞에 자신이 심히 비천함을 고백하며(시 142: 6), 시 143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다(시 143: 2). 이러한 맥락은 이미 살펴본 시편 1권의

---

40) 윌슨은 시편 제 4권이 시편 최종 본문의 "핵심 (center)"로 역할하며, 여호와 왕권과 그에 대한 순종에 시편 신학의 중심 축 기능을 한다고 본다. Wilson, 윗글(1985), 215.

41) 윌슨은 시편 5권에 나타난 다윗 시편들은 율법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또한 146-150편에서 여호와 왕권 사상이 드러남으로 1-3권에 나타난 다윗 왕권 사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Wilson, 윗글, 220-228. Cf. David M. Howard, "Editorial Activity in the Psalter," J. Clinton McCann(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3), 63쪽.

42) 골딩게이나 앨런은 110편의 화자를 선지자 혹은 제사 의식을 인도한 제사장으로 본다. 이에 반하여 필자는 다윗을 110편의 화자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본문 자체에 다윗의 화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외할만한 역사적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Goldingday, 윗글(2008), 291; Allen, 윗글, 114.

www.kci.go.kr

"인간관"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시편 1권에서는 시 8 - 17편에서 이런 인간관의 고찰을 진행한 후 시 18편에 이르러 다윗 왕권의 수립을 확정적으로 노래하였는데, 시편 5권에서 인간관의 재 고찰 과정을 거쳐 시 144편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 144편이 취하고 있는 시 8편과 시 18편의 '인간관'과 '다윗 왕권'의 이미지의 전환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다윗은 더 이상 피조 세계의 지도자/왕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으며, 한 사람의 평범한 인생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 144편은 특별히 시 18편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 다윗의 이미지를 이방인의 압제로 고통받은 다윗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시 8편에서 노래한 긍정적인 인간관을 사뭇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미지 전환의 목적은 분명하다. 다윗 왕권이 여호와 왕권에 복속해야 함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시편 5권은 다윗 언약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시편 3권에서 실패한 것으로 묘사된 다윗 언약은 시편 5권에 이르러서 재삼 언급되면서 종말론적으로 새롭게 전개되어 갈 것을 노래한다. 김 진규의 분석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시편 전체의 맥락에서 바라보았을 때,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이 아니라, 미래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있는 영원한 언약"이다.[43] 그러나 다윗 언약은 시편 1-3권에 나타났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다윗 언약은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 전환점은 시편 4권에서 설명하는 '여호와의 통치권'이다. 시편 5권은 이러한 여호와의 통치권 아래 다윗 언약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별히 시 138 - 145편의 맥락에서 시 144편은 이런 다윗 언약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준다. 다윗 언약의 종말론적 회복은 여호와 왕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을 '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다윗 언약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인생'으로 인정함이다. 시편 1-2권의 용사로서의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린 인간 다윗이 되었을 때에, 다윗 언약은 비로소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시 145편의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며(시 145: 1)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권을 찬양한다(시 145: 12-13).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존재는 이제 다윗 한 사람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 분의 다스

43) 김 진규, 윗글(2009), 107쪽.

www.kci.go.kr

림을 받는 공동체(하나님의 백성: 시 144: 12-15; 시 145: 18-19)가 된다.[44] 시 144편 1-11절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시 144편 12-15절의 공동체로 확장(democratization)되고,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시 148편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시 149편에서는 성도들이 열방을 굴복시키는 모습으로, 시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시편 5권이 그리는 다윗 왕권의 회복은 시편 1-3권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다윗 왕권 자체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이며 여호와 왕권과 그에 복속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주체가 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시 144편을 시 8편과 시 18편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시 144편은 시 8편에서 묘사하는 만물의 지도자로서의 인간관과 시 18편이 노래하는 다윗 왕권을 전환시켜 '한 사람의 평범한 인생'으로서의 다윗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시편 5권이 지향하고 있는 여호와 왕권의 주제와 보편화(democratization)의 주제를 강화함으로써, 여호와 왕권을 인정함으로써만 다윗 언약이 회복될 수 있으며, 다윗 계통의 메시아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윗 언약에 동참하여 그 주체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시편 3권에서 실패한 것으로 묘사되는 다윗 언약은 시편 5권에서 하나님의 왕권 앞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회복되며, 이런 주제적 흐름을 위해 시 144편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다윗 왕권은 여호와 왕권에 순복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실천에 의하여 극복되고 발전된다. 다윗 언약은 이제 더 이상 '다윗'만이 주체가 되는 언약이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성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

44) 강 소라는 시 138 - 145편 맥락에서 시 145편이 갖는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 시 145편은 이 다윗 시편 묶음의 첫 시편인 시 138편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시 138편을 넘어선다. 시 138편은 간구로 끝이 쳐지는데 반해, 시 145편은 찬양과 확신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둘째, 강 소라는 시 145편 14-20절은 시 139 - 144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구원 간구(시 139: 19; 140: 1[2], 4[5]; 141: 8-10; 142: 6[7]-7[8]; 143: 1-2, 7, 9; 144: 6-7, 11)에 대한 "궁극적 응답"이라고 본다. 이러한 주제적 연결점들은 시 144편이 시 145편과 맺고 있는 긴밀함을 잘 보여준다. 이런 강 소라의 이해에 필자의 논의를 더한다면, 시 144편의 다윗의 모습이 시 145편에서 궁극적인 찬양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준비시켜 준다는 점이 더욱 확실히 부각된다는 점이 보다 선명히 드러나게 된다. 강 소라, 윗글, 32-34쪽.

www.kci.go.kr

동참하는 공동체 성이 강화된 종말론적 언약이 되는 것이다.

6. 참고문헌

강 소라, “시편 145편: 시편에서의 위치와 기능,” 「구약논집」 제 4집(2008), 23-41쪽.

김 성수, “시편 3-14편의 문맥 속에서 시편 8편과 14편 읽기,” 「ACTS 신학과 선교」 제 9집(2005년), 67-69쪽.

김 이곤, “시편 8편에 나타난 신학적 인간학,” 「한신논문집」 제 3집(1986년), 1-20쪽.

김 정우, 「시편주석 I」(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5).

_____, 「시편주석 III」(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0).

김 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 89편: 다윗 언약은 실패한 언약인가?” 「구약논단」 (2009년 6월), 83-110쪽.

방 석종, “시편 8편 연구: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 「신학과 세계」 제 28집(1994년), 7-24쪽.

유 윤종, “시편의 최근 연구 동향,”「구약논단」제 32집(2009년 6월), 30-62쪽.

이 기락,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서학적 고찰: 창세 1-2장의 인간 창조 설화와 시편 8편을 중심으로,”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 7집(1992년), 34-53쪽.

이 태훈,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편의 여섯 가지 장르별 이해」(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6).

이 희학, “시편 8편을 통해 본 구약 성서적 인간 이해,”「구약신학저널」제 2권(2001년), 149-167쪽.

Allen, L. C., *Psalms 101-150* (WBC 21), (rev.; Nashville: Thomas Nelson, 2002).

Borger, R., “Gott Marduk und Gott-König Šulgi als Propheten,” *BiOr* 28 (1971), 4-13쪽.

Booij, Th., “Psalm 144: Hope of Davidic Welfare,” *VT* 59 (2009), 173-180쪽.

Craigie, P. C., *Psalms 1-50* (WBC 19), (Waco, TX: Word Books, 1983).

Firth, D. G./P. Johnston,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Downers Grove: IVP, 2005).

Gerstenberger, E. S.,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FOTL XV), (Grand Rapids, MI: Eerdmans, 2001).

Goldingay, J., *Psalms Volume 1: Psalms 1-41*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MI: Baker,

www.kci.go.kr

2006).
_____, *Psalms Volume 3: Psalms 90-150*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MI: Baker, 2008).
Ho, S. S., "Wisdom, Life, and Restoration of Zion: A Compositional Study of Psalm 119 and the Songs of Ascents,"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5.
Holtz, S. E., "The Thematic Unity of Psalm cxliv in Light of Mesopotamian Royal Ideology," *VT* 58 (2008): 367-380쪽.
Hossfeld, F.-L./E. Zenger, *Psalms 2: A Commentary on Psalms 51-100* Linda M. Maloney(trans.), (Hermeneia), (Fortress: Minneapolis, 2005).
_____, *Psalmen 101-150* (HThKAT), (Freiburg im Breisgau: Herder, 2008).
Howard, D. M., "Editorial Activity in the Psalter: State-of-the-Field Survey," J. C. McCann(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3), 52-70쪽.
_____,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Winona Lake: Eisenbrauns, 1997).
_____, "Recent Trends in Psalms Study," D. W. Baker/B. T. Arnold(eds.), *The Face of Old Testament Studies: A Survey of Contemporary Approach*, (Grand Rapids, MI: Bakers, 1999).
Kang, So-Ra, "Reading Book I of the Psalter through the Ashre Sayings,"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7.
Katanacho, Y. I., "Investigating the Purposeful Placement of Psalm 86,"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7.
Kim, Jinkyu, "Psalm 110 in its Literary and Generic Contexts: An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Ph.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3).
_____, "The Strategic Arrangement of Royal Psalms in Books IV-V," *WTJ* 70 (2008), 143-157쪽.
Kim, Sung-soo, "Reading the Songs of Ascents (Psalms 120-134) in Context," Ph.D dissertation, Luther Seminary, 2003.
Kraus, H. J., *Psalms 60-150: A Continental Commentary*, H. C. Oswald(trans.), (Minneapolis: Augsburg, 1989).
Kuntz, J. K., "Engaging the Psalms: Gains and Trends in Recent Research," *CR: BS* 2 (1994), 77-106쪽.
Lama, A. K., "The Placement of Psalm 145 in Book V: A Compositional Analysis,"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7.

www.kci.go.kr

Lvingstone, A., *Court Poetry and Literary Miscellanea* (State Archives of Assyria 3),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89).
Mays, J. L., *Psalm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4).
McCann, J. C./N. R. McCann,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the Psalms as Torah*, (Nashville: Abingdon, 1993).
McCann, J. C.,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_____,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Psalter," J. C. McCann(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93-107쪽.
_____, "The Shape of Book I of the Psalter and the Shape of Human Happiness," P. W. Flint(ed.),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Sup 99), (Leiden: Brill, 2005), 340-348쪽.
Miller, P. D., "The Beginning of the Psalter," J. C. McCann(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83-92쪽.
_____, "The End of the Psalter: A Response to Erich Zenger," *JSOT* 80 (1998), 103-110쪽.
Mitchell, D. C.,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JSOTSup 25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7).
Moon, EunMee, "The Sapiential Reading of Psalms 107--18 in the Framework of Books IV and V of the Psalter," Ph.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8.
Nasuti, H. P., "The Interpretive Significance of Sequence and Selection in the Book of Psalms," P. W. Flint(ed.),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Sup 99), (Leiden: Brill, 2005), 311-339쪽.
Saur, M., *Die Königsppsalmen: Studien zur Enststehung und Theologie* (BZAW 340), (Berlin: deGruyter, 2004).
Starbuch, S. R. A., *Court Oracles in the Psalms: The So-Called Royal Psalms in their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SBLDS 172), (Atlanta: Scholars, 1999).
Terrien, S.,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Eerdmans Cri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drmans, 2003).
Weiser, A., *The Psalms: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Whybray, R. N., *Reading the Psalms as a Book* (JSOTSup 222),

www.kci.go.k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6).
Wilson, G. H.,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o: Scholars Press, 1985).
_____, "Shaping the Psalter: A Consideration of Editorial Linkage in the Book of Psalms," J. C. McCann(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JSOT Press, 1993), 72-82쪽.
_____, *Psalms: Volume 1*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2).
_____, "King, Messiah, and the Reign of God: Revisiting the Royal Psalms and the Shape of the Psalter," P. W. Flint(ed.),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VTSup 99), (Leiden: Brill, 2005), 391-406쪽.
Zenger, E., "The Composition and Theology of the Fifth Book of Psalms, Psalms 107-145," *JSOT* 80 (1998), 77-102쪽.
_____,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Psalms," *Proceedings of the Irish Biblical Association* 17 (1994), 37-54쪽.

검색어

시편 144편
다윗 언약
다윗 왕권
여호와 왕권
구성적 접근법
보편화

투고일: 2010년 10월 7일
심사일: 2010년 11월 1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1일

www.kci.go.kr

Davidic Kingship in Psalm 144 and Its Theological Implications

Hee Suk Kim
Lecturor at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PhD

This essay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Psalm 144 pictures the Davidic kingship as subordinate to YHWH's kingship.

For this purpose, it employs a compositional approach to the Psalter initiated by G. H. Wilson.

The main focus of the essay lies in the examination of the intertextual relationships between Psalm 144 of Book V of the Psalter and Psalms 8 and 18 of Book I.

First, Psalm 144 borrows an image of Davidic kingship of Psalm 18 which represents YHWH's kingship, yet transforms it into an image of a normal person who becomes subordinated to YHWH's kingship. In Psalm 18, David is described as a warrior that mirrors YHWH the Divine warrior, which well explains David's ability to make the nations submit to him. In Psalm 144, though David is pictured as a warrior, the connection between him and the Divine Warrior is not present, which accordingly allows for depicting David

www.kci.go.kr

as being afflicted by the nations.

Psalm 144 also borrows a question in Psalm 8 that asks about the humanity's role in creation, yet it purposefully twists Psalm 8's answer to the question into another direction. Contrary to Psalm 8's declaration of humanity's dominion over the created world, Psalm 144 expresses the meaninglessness of life.

Accordingly, it seems that Psalm 144 interconnects the previous points in order to re-evaluate the theological importance of Davidic kingship. In Book I, Davidic kingship is elevated into the representation of YHWH's kingship. In Book III, Davidic covenant is seriously questioned as if it had become a failed one. Davidic kingship is seen as having failed, since it has been regard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Davidic covenant. This connectedness of Dadivic kingship and Davidic covenant is understood from a totally different perspective in Book V, which attempts to provide expectations for the restoration of Davidic covenant not with the restoration of Davidic kingship *per se* but with the subordination of it to YHWH's kingship. As a conclusion to the Psalter, Book V postulates that the restoration of Davidic covenant should be done in a way of democratizing the covenant participants, all those who fear YHWH by obeying to the Torah, not of re-establishing the royal position of Davidic descendants.

Keywords

Psalm 144
Davidic Covenant
Davidic Kingship
Kingship of YHWH
Compositional Approach
Democratization

www.kci.go.kr